

제739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8월 23일)

걸작과 복제작, 로마가 전하는 그리스 이야기

양희정, 311호 고대 그리스·로마실 18:00~18:30

그리스 고전기의 걸작들은 전쟁, 자연재해, 재료의 재사용 등의 이유로 지금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대부분 로마 시대에 만든 복제작으로 전합니다. 그리스는 기원전 2세기에 로마에 점령당하는데, 로마는 전리품으로 가져간 그리스 미술품들을 공공장소와 개인의 저택에 진열해 두고 로마의 자부심을 북돋웠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 미술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복제작을 대량으로 만들었고, 그 복제작들 덕분에 우리가 그리스 원작의 모습을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의 토르소>에서는 잘 단련된 육체를 이상화하여 표현하면서 자세와 비례를 통해서 균형을 강조한 고전기 대가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작은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의 유명한 조각가 폴리클레이토스나 그 제자가 만든 청동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유형의 조각상은 비슷한 복제작이 여럿 전해 내려옵니다.



그림1. <남성의 토르소>

로마,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원작의 1세기 복제작, 대리석, 높이 86.5cm, 빈미술사박물관 소장



그림2. <창을 든 남자>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청동상의 로마 시대 복제작, 나폴리 국립고고학박물관(사진: 위키미디어 CC BY-SA 2.0)

토우가 등장하는 의례이야기

이상미,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토우장식 토기에 담고 있는 이야기는 투명OLED 패널을 활용하여 영상과 전시품을 함께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새로운 전시 기법을 선보였습니다.

진열장 전시품과 함께 연출된 영상은 토우장식 토기에 담겨있는 헤어짐의 축제이야기로 구성되었습니다. 3개의 영상은 공동의례로 연결된 사람들, 행렬을 따라 행진하는 사람들, 상징적 세계관을 담은 이야기로 표현되었습니다.

1. 공동의례로 연결된 사람들

장송의례는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공동체의 한 사람을 떠나보내며 상실의 슬픔을 의례로 승화하는 과정이 표현되었습니다. 공동으로 지내는 의례는 절대자를 향해 삶의 안식을 기원하는 의식을 거행하면서 사회적 결속을 복원하고, 질서를 재정비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헤어짐의 축제 토우 이야기 영상

2. 행렬을 따라 행진하는 사람들

장송의례의 행렬을 이루어 어딘가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행렬에 참여하는 등장인물은 선두에서 피리 같은 관악기를 부는 사람과 연주하는 음악에 맞추어 두 팔을 벌려 춤을 추는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진 장면에서도 말을 타고 행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징적 세계관을 담은 이야기

물가에서 개구리와 물고기가 자유롭게 놀고 있는데, 뱀이 나타나서 개구리의 뒷다리를 물자 세상이 뱀이 휘감은 원안의 세상으로 변합니다. 또한 멀리서 큰 구렁이 두 마리가 나타나 꼬리로 사람의 온 몸을 휘감아 데리고 가듯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야기마다 등장하는 뱀과 개구리는 당시의 상징적인 세계관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푸른빛에 물드는 시간, 고려청자 감상법

-고려비색을 중심으로-

강경남, 303호 청자실 19:00~19:30

전성기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은 유색, 기형, 장식 기법, 문양 등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송나라 사신 서긍徐兢이 1123년에 지은 『선화봉사고려도경』에 따르면 당시 고려청자는 ‘비색翡色’으로 불리며 사랑받았고, 금칠을 한 그릇이나 은기銀器보다 귀중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고려비색의 ‘비翡’자는 물총새, 혹은 옥玉을 뜻하며, 어감은 무엇보다 구체적이며 감성적입니다. 고려청자의 유색은 투명감 있는 녹색을 기본으로 청록색이 약간 강한 것, 푸른색이 강한 것, 연하고 진한 것, 윤기가 있거나 없는 것 등 그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합니다. 비색이란 특정 청자의 한정적인 색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옥을 깎아 만든 듯한 아름다운 비취빛 유색을 부른 애칭이었습니다.

고려청자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특징 중 하나는 유약이 이루어낸 깊이입니다. 그릇의 표면이 고른 면에는 유약을 입힌 층이 얇아져서 바탕흙과 유약이 밀착되어 바탕흙의 색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반면, 형태가 굴곡진 경우에는 깊게 파인 부분에 유약이 고이게 됩니다. 유약이 몰린 부분은 유색이 깊고 진하며 비취옥처럼 윤기가 흐르고 차분한 색을 보입니다.

과학적 성분분석 결과, 왕실용 청자를 만들었던 전라남도 강진 내에서도 시기와 가마터에 따라 유약 원료에서 점토와 나무재의 혼합비율, 사용한 재가 조금씩 다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절정기 고려청자, 즉 비색청자의 경우 철 함량이 1.5% 이내 산화티타늄은 0.2% 이내로, 초기 청자에 비해서 낮은 비율을 보입니다. 최고급 청자 제작지로 알려진 강진 사당리 7호의 고려 장인은 비취빛 유색과 질감을 얻기 위해 원료 준비 과정부터 다양한 재료와 혼합 비율 등을 실험하며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림1.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 고려 12세기, 경기도 개성 출토, 국보, 높이 15.3cm



그림2. 청자 참외 모양 병, 고려 12세기, 전 인종 장릉 출토, 국보, 높이 22.8cm

말갯춤으로 보는 가야 문화

김혁중, 107호 가야실 19:00~19:30

수준 높은 말갯춤(馬具) 제작기술을 가졌던 가야에서는 물건과 사람을 운반하는 기능 이외에 사회적 역할이 더해졌습니다. 말은 화려한 마구를 갖추면서 점차 말을 탄 사람의 높은 신분을 나타내거나, 치열했던 전쟁에서는 기동력과 위압감으로 말에 갑옷을 씌워 전쟁의 중요 자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말은 소중한 자원으로 인간의 안식과 평화를 줄 목적으로 희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은 가야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아 중요한 역사적 상황을 같이한 동반자였습니다.

가야의 말갯춤은 세부 기능에 따라 제어구, 안정구, 고정구로 나눌 수 있으며 기능과 상관없이 모든 말갯춤에서 장식성이 확인됩니다. 안정구에 해당하는 안장과 발걸이는 문양이 가미되거나 재질의 변화를 통해 장식성이 가미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고정구는 장식을 고려하여 별도의 마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말띠드리개, 방울, 말띠꾸미개가 대표적으로 말을 다루거나 제어하기 위한 다른 기능은 없으며, 오로지 장식만을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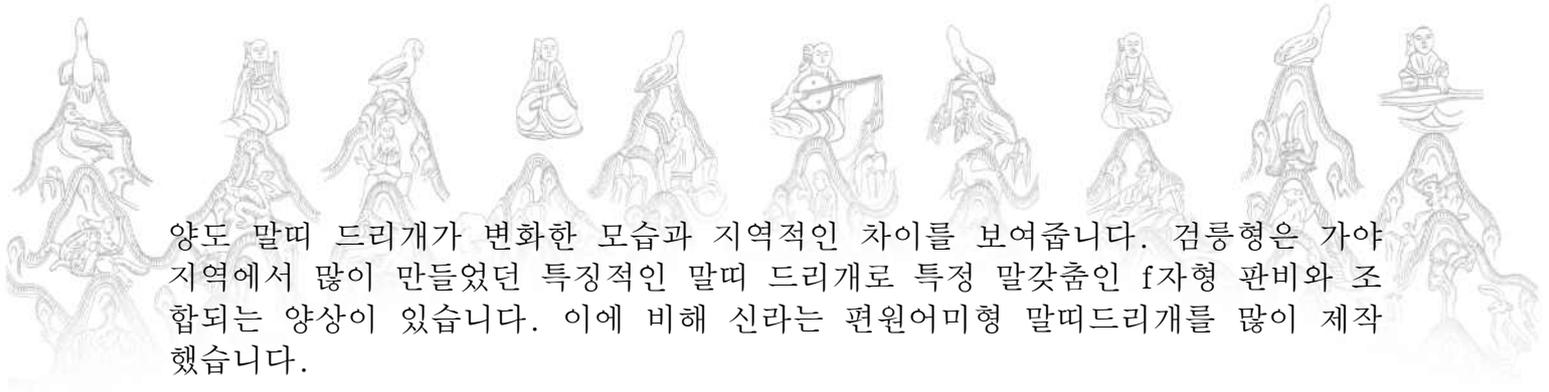
장식용 말갯춤은 말띠꾸미개와 말띠드리개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띠꾸미개는 운주, 십금구, 장식금구를 통칭하며 굴레, 가슴걸이, 후걸이의 교차점을 고정 및 연결하거나 끈 위에 박아서 장식하는 말갯춤입니다. 삼계는 안장과 재갈을 연결하는 끈을 통칭해 부르는 것으로 말의 머리에 돌린 끈을 면계(굴레), 가슴은 흉계(가슴걸이), 엉덩이 부위는 고계(후걸이)로 구분됩니다.

1. 말띠 꾸미개

말띠 꾸미개는 삼계 중에서 가죽끈이 교차되는 곳에 장식한 금구金具로 말을 제어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장식성으로 말을 소유한 사람의 신분을 간접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여러 줄의 가죽끈을 서로 묶거나 말띠 꾸미개 자체에 문양을 새기거나 금동으로 재질을 달리하여 장식합니다. 말띠 꾸미개는 형태에 따라서 환형, 판형, 반구형, 보요부형 등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환형운주는 가야에서 전 시기 걸쳐 유행하며 장식이 없어서 실용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2. 말띠 드리개

말띠 드리개는 굴레, 가슴걸이, 후걸이의 끈에 매달아 장식하는 마구입니다. 말띠 드리개의 평면 형태에 따라서 심엽형, 편원어미형(타원형과 물고기꼬리모양), 검릉형(칼끝모양), 자엽형(나뭇잎모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말띠 드리개의 평면모양을 통해 지역적인 차이를 구분할 수 있고, 내부의 문



양도 말띠 드리개가 변화한 모습과 지역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검릉형은 가야 지역에서 많이 만들었던 특징적인 말띠 드리개로 특정 말갓춤인 f자형 판비와 조합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신라는 편원어미형 말띠드리개를 많이 제작했습니다.

3. 방울

말방울은 주로 청동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방울의 형태는 둥글거나 타원을 띠는 것, 종과 유사한 것, 고리 모양이 있습니다. 고리 모양의 방울을 제외하고는 방울 몸통 상부에 매달기 위한 고리로紐(紐)가 달려있습니다. 방울이 달린 위치는 대개 말의 가슴결이 부분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고리 모양의 방울은 둥근 고리의 바깥에 방울을 3~4개를 붙인 것으로 후결이의 가죽 끈을 서로 연결하는 고리로도 사용되어 다른 방울과 차이가 있습니다.

4. 신라 말갓춤과 가야 말갓춤의 관계

신라는 4세기말 이후 말갓춤에 귀금속 장식이 가미되었는데, 이를 장식용 말갓춤이라고 합니다. 금빛과 비단벌레로 장식한 신라의 말갓춤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말갓춤이 황남대총 남분 출토품입니다.

가야는 4세기말에서 5세기 초 신라의 영향으로 환판비, 발걸이, 말띠 드리개 등이 출현하면서 새롭게 대가야의 말갓춤이 시작됩니다. 5세기에는 이전 시기보다 말갓춤을 부장하는 무덤이 증가하고 말갓춤의 종류가 다양해집니다. 그중에서 창녕지역은 신라와 가야 말갓춤 사이에서 장식용 말갓춤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대가야 말갓춤(고령 지산동 고분군 출토)